

비판이론과 인간해방 그리고 조직개발의 문제

南 重 憲

경영학과

(1983. 9. 29 접수)

〈요 약〉

이 논문에서 우선 현대 문명의 병폐를 적시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 비판이론의 입장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안목에서 인간해방의 의미, 조직개발의 대안을 추구하여 보았으며, 이러한 논의중에서 제기되는 한계점도 아울러 언급하여 보았다.

Critical Theory and Organizational Designs on the perspective of Human Emancipation

Nam Joong-heon

Dept. of Management

(Received September 29, 1983)

〈Abstract〉

The proponents of critical theory seek to reveal society for what it is, to unmask its essence and mode of operation and to lay foundations for human emancipation through deep-seated social change. They have emphasized a revolution of consciousness and the change of present cultural structure.

In this paper, I tried to pursue the meaning of human emancipation and alternatives of organizational design in the light of critical theory and its perspectives. Besides, I mentioned the limitations in building up of its logic.

I. 글머리에

현대의 인간들은 거대한 이 시대의 흐름, 산업화로 치달고 있는 이 경직화된 문화의 율가미안에서 노예가 되어 본래의 자기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점차 기계와 상품화되어가고 있다. 현대의 물질문명이 휩쓸고 지나가는 곳마다 인류의 정서와 고상한

인간성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1)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결국에가서는 마치 악마의 손으로 휘어 눌은 것 같이 무조건조합과 황폐만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감지하게 된다. (2) 기계의 발달과 공업시대의 확대, 감각스러운 인구폭발, 인구집중현상과 함께 도시화는 급속히 전진되었고 온갖에 아스팔트가 깔리고 시멘트 벽돌로 높이 쌓아올린 고층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지게 되어 사람들은 점점

(1) F. Dürrenmatt의 「노부인의 방문」(林鍾緒譯, 正音社)이라는 희극에서는 어느 마을의 선량한 사람들이 무과 소비압력 때문에 자신들의 양심과 정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2) 마르케스(Márquez), 「백년동인의 고독」(One hundred years of solitude)의 소설이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자 휴먼새를 맡으면서 사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매연가스 공장의 폐기물질, 수질오염 등 공해의 범람과 도시범죄로 생활의 환경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생산성우위, 능률주의의 일차원적(一次元的)인 사고(思考)⁽³⁾의 사조는 전체주의적인 기술적 조직 즉 쇠우니(iron-cage)같은 판토조지⁽⁴⁾ 속에 사람들의 생활을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표준화된 행동양식의 틀속에 몰아넣고 자유 및 창의성을 여지없이 말살시키는 공포의 사회를 도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극도의 분업화된 사회구조와 대중사회의 출현, 그리고 경제적 권력적 치열한 경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력감과 소외감을 안겨주었고, 친인척적으로 맺어오던 인간관계는 타산적 피상적 관계로 흘러⁽⁵⁾ 옛날의 전원적 목가적 낭만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심한 외로움을 느끼거나 정신질환을 일으키는가 하면 물질의 가치가 인간가치위로 넘어서는 공포에서 사회의 한편에서는 풍요를 누리며 사치와 유흥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존이 불능하여 냉대와 무관심속에서 밑없이 죽어야만 하는 심각한 현실을 빚기도 했다. 극심한 경쟁사회의 뿌리는 전체제적 구조속에서 얻을 수 있는 데, 강대국끼리는 서로 앞을 다투어 식민지 확보를 위하여 세력의 팽창을 꾀하였던 중, 1차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초래하였고 또한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와 사회주의 세계는 동일한 산업주의 선상에서 경쟁하는 과정에 인제 3차세계대전을 촉박시킬지 모르는 위험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⁶⁾

이러한 현대의 문화현상 속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참다움을 구하지 못하고 허위 의식(false consciousness)⁽⁷⁾ 속에서 날의 인생을 실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욕구는 망가한 채, 또한, 진정한 자아(自我)는 내뿜어져진 채, 인

위적으로 조작된 활라적 욕구에 종신처럼 부풀어져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너무나 조급하게 된 것이다. 배스폰 등 선진이나 광고매체에 의해 조작된 고도소비(高度消費)의 압력⁽⁸⁾ 및 고도의 권력욕구의 경쟁심리에 쫓기어서 인간의 본래의 참 행복할 수 있는 욕구는 무의식 세계속에 망각되고⁽⁹⁾ 활라적으로 의식되는 경쟁적 허위욕구(虛僞欲求)를 쫓아 끝없이 속도목 노동과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거운 굴레를 짊어진 운명에 허덕이게 되었으며⁽¹⁰⁾ 이것은 또한 이 사회조직의 통제매카니즘에 너무나도 나약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 자신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송두리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¹¹⁾ 다른 사람의 척도, 다른 사람의 소비수준, 다른 사람의 목표를 쫓아가기에 많은 대중이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가랭이가 찢어질 듯한 각박한 속에 매일 쫓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권력자도 더욱 권력을 집중시키고, 부의 축재자도 더욱 부를 축적시키는 필요이상의 잉여물(surplus)추구⁽¹²⁾의 경쟁 때문에 더욱 분열증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미 위험수위까지 문제가 만연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지는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더이상 악화되기 전에 인간성 회복 자유회복의 방향으로 이 사회가 신뢰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인식되는 것이다. 즉, 현재의 문화구조는 사회구성원 일반의 진실한 욕구체제를 대변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대에 매우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인이 전반적인 문화의 구조속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¹³⁾ 기능주의적 사고, 도구적 사고에 깊이 몰두어져 욕구와 욕구충족판계의 개인적

(3) Marcuse, One-dimensional Man, Boston, 1964.

(4) M. Weber, "Bureaucracy," In Shafritz & Whitebeck(eds.) Classics of Organization Theory, Illinois; More Publishing Co., 1978, pp. 37-42.

(5) 金鏗東, 「現代의 社會學」(서울: 博英社, 1981), pp. 173-176.

(6) E. M. Burns, Western Civilizatio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64, 6th) pp. 836-44.

(7) G. Burrell & G. Morgan,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London: Heinemann, 1979), p. 32.

(8) 여기서는 마아케팅의 수요창조역할을 부정적 측면에서 보았으며, 자본가계급에 봉사하는 기능적 도구적 효과를 풍성한 것이다.

(9)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이 방향을 의식화시켜 치유하는 방법을 택한다.

(10) 中一激, 「권정」, 「프랑크푸르트학파」(청담, 1987) pp. 117-132. 에 실려있는 車仁錫의 "마르쿠제와 一次元的社會" 참조한 것.

(11) 인도 간디의 국민봉애운동은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민족의 자존을 찾으려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2)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단순한 목적적 의미를 갖는 경쟁-부기 산업사회는 희소성(scarcity)의 시대가 아니라 잉여(surplus)의 시대. G. Burrell & G. Morgan, 앞책, pp. 292-293 참조.

(13) 李勳再와 張夏眞 共譯(J. B. Baldrige 譯), 「社會學」(經文社, 1982), pp. 61-118.

이거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욕구자체를 구성하는 좀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안목에 거시적으로 눈을 팔리지 못하는 군상들의 정신구조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학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기존(既存)학문세계의 풍토와 관련하여 마치 청량제(淸涼劑)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론으로서 비판이론(批判理論)⁽¹⁴⁾이 있다. 오늘의 문명에 대해서는 비판정신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토론해 보아야 결론이 날 문제로서 아무도 독선적(獨善的)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아무도 비판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말없이 비판해가는 걸만이 인류가 살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비판이론은 참진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보수주의적(保守主義的)인 사고(思考)의 틀을 넘어서서 좀 더 자유로운 사고의 영역으로 인식의 틀을 옮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¹⁵⁾ 이틀의 인식은 콩트(Comte)이래로 자연과학적인 특성을 도입한 실증주의(positivism)나 의미구조의 규명에 초점을 맞춘 해석학주의 접근방법(interpretive approach)을 넘어서서 비경험의 세계까지, 존재를 넘어선 가능성(可能性)의 세계까지 취급하는 새로운 인식의 영역을 갖는 비판주의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서'(beyond existence), '현문화의 틀밖에서서'(outside the present culture structure) 감추어진 비경험의 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대담한 시도이다.⁽¹⁶⁾ 이러한 비판 이론은 보수주의 관점과 대립하여 급진적(radical)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상징체계(象徵體系), 의사교류체계를 증시하는 점에서 주관적인 심리구조(心理構造)의 개혁(改革)을 강조한다는 점과 또한 그 접근이 배후 거시적(巨視的)인 틀과 연관을 맺는다는 몇가지 내용으로 특징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문화체계를 억압구조(抑壓構造)로 파악했던 비판이론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 이론이 기존의 모든 관점을 극복하고 넘어서려 했던 인식상의 특징과 관점들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론의 관점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여러 다른 이론들의 관점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이론이 심각하게 다루며 음미하려 했던 인간해방의 문제를 규명하려고 할 때 이 이론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마르크시즘(Marxism)의 주장과 그 접근이 상이(相異)함을 밝히려 하였으며, 비판이론은 산업자본주의와 동시에 관료적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모두 함께 극복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을 유의해 보았다. 그리고 많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적 심리구조의 틀의 변혁 없이 객관적인 억압적 사회구조를 전복하려고 하는 많은 사회운동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평가함과 동시에 해방을 위한 전략과 교육제도의 비판 그리고 우리나라의 심리구조와 사회구조에 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보았다. 인간의 진실한 해방은 관료제와 같은 비인간적 사회조직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조직개발(組織開發)에 있어서는 반조직(Anti-organization)⁽¹⁷⁾이라고 불리우는 설계와 관현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조직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기왕(既往)의 안이한 조직관념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였다.

이 논문 전체를 통하여 인간 해방을 위한 문화의 재구성 재창조는 참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인간생활의 맑다운 진리는 비판정신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¹⁸⁾ 비판이론은 체분정신, 비판정신이 결여되어 자유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며 의사교류가 원만하지 못하는 사회는 기존문화의 보수적 경향으로 경직된 사회라고 규정되었다.⁽¹⁹⁾ 또한 비판정신이 없는 개인의 영혼, 부정(否定)의 사고가 불가능한 영혼은 이미 죽은 사람과 진배(眞背)없는 인간전락(人間轉落)의 표징이라는 비판이론의 견해는 많은 생활의 길을 열어준다고 보았다.

II. 비판이론의 관점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기에 걸쳐서 서구에서는 파시즘(fascism)이 급속히 태두하였으며, 이에 대한 저항운동도 또한 여러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파시즘에 저항하는 의식적 주체성의 문명이 주목되어 마

(14) 白承均, 「辨證法的 批判理論」(經文社, 1983), 그리고, 현상과 인식(83년 여름호) pp. 8-32의 엄정식 교수의 글 참조.

(15) 白承均, 앞책, pp. 13-40.

(16) 卍一澈(원), 앞책.

(17) G. Burrell & G. Morgan, 앞책, pp. 310-324.

(18) 실증주의나 해석학주의의 경험분석적 인식은 리위외식을 넘어서 숨겨져있는 걸리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19) J. Habermas, 'Towards a Theor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quiry, 13, 1970).

르크스 내부에서도 인권과 자유의 문제가 재검토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때 독일어판「마르크스 엥겔스 건집」에서 처음으로 초기마르크스의 유고(遺稿)가 발표되었는데⁽²⁰⁾ 이를 계기로 하여 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아직 소수이기는 하였으나 초기의 마르크스 소외론(疎外論)을 단서로 하여 마르크스 사상을 재파악하던 서 휴머니즘(humanism)과 마르크스주의자외의 판계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독일에서의 프랑크푸르트 학파(Frankfurt School)와 프랑스에서의 르페브르(Henri Lefèvre 1901~)등이 바로 그것이다.⁽²¹⁾

프랑크푸르트학파는 당시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사회연구소(1923년 창립)에 결집하고 있던 호르크하이머(Horkheimer), 마르크세(Marcuse), 프롬(Fromm), 아도르노(Adorno), 하버마스(Habermas)등의 그룹이다.⁽²²⁾ 이 학파의 사람들은 초기 루키치(Lukács)에 연결되는 서구적 마르크스체보에 속해있다. 그들은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에서 보여지는 변증법적 이성이 지닌 비판적 정신을 계승하면서 파시즘과 그것을 낳은 사회적 사상적 체조건에 대한 비판적 이론(critical theory)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자세를 보였다.

원래 비판이론은 그 의미가 상당히 광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비판이론이라 칭함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인물들과 사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마르크세는 이 마르크스 초기의 유고(遺稿)가 발표되자 곧 연구에 착수하여 그것을 통해 인간소외와 그 극복의 문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해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탈취하자 그는 이 학파의 주요인물들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할 수 밖에 없었다. 히틀러의 광기가 뿌린 전체주의 열기속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이 학파의 저항, 시류(時流)에 편승하지 않고 굳이 고난의 길을 택한 지적 양심으로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함이 의미 있다고 하겠다.⁽²³⁾

이들은 자본주의 상부구조(superstructure)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으며 실증주의 과학, 합리성, 기

술, 법적제도, 가족단위, 관료제, 언어, 예술, 음악, 문학, 권위성격, 정신분석 등 그 범위가 전반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들의 반실증주의 입장은 방법론적 논쟁인 Adorno와 Popper의 철학적 논쟁에서 유명하다.⁽²⁴⁾ 이 학파는 비판철학(critical philosophy)영역안에서 해석학적 전통(hermeneutic tradition)의 중심개념을 결합 시켰다고 볼 것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Lukács나 Gramsci와는 달리 정치적 행위, 혁명적 강령보다는 오히려 지적, 철학적 비판을 행하였다.

같은 비판이론의 범주에 속하면서 Lukács와 Gramsci의 사상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그 비판의 성격이나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Lukács⁽²⁵⁾는 정통 마르크시즘(orthodox Marxism)의 대안(alternatives)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역할과 계급의식(class consciousness)을 강조하였다. 즉 상부구조(superstructure)의 요인파 그 구체화 과정(reification)은 중심개념이었다.

Lukács와 매우 흡사한 Gramsci의 사상은 의식(consciousness)을 추상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억압구조는 물질적 강제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식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념적 헤게모니(ideological hegemony)가 지배계층의 권력을 발전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것 같다고 하였다. 공장위원회 제도(factory council)를 통한 노동자국가(worker's state)를 실현코자 하는 등⁽²⁶⁾ 이론과 실재를 결합, 행동적 급진적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비판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관점을 휴머니즘과 연결하여 역사에 참여하는 지식인들의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통마르크시즘과 다른점은 마르크스가 객관적 사회구조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어 역사의 발전을 물질주의, 경제결정론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반면, 비판이론은 사회를 내부로부터 변혁하려고 하는 인간의 주체적 노력, 사회적 현실(reality)이란 사람

(20)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21) 中村雄二郎(백산서당, 번역), 「개설철학사」(백산서당, 1983) pp.241-243.

(22) 白承均, 앞책, pp.79-122.

(23) 中一徹(권), 앞책.

(24) 앞책, pp.35-36.와 G. Morgan & Burrell, 앞책, p.291참조. Adorno와 Popper 모두 경제주의를 반대하여 전개한 연구이지만 서로의 인식의 괴리감이 다르다.

(25) G. Burrell & G. Morgan, 앞책, pp.284-288.

(26) S. Clegg & D. Dunkerley, Organization, Class and Contro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pp.106-107.

들이 부여하는 의미(meaning)의 체계 해석의 체계라고 보고, 주관적인 상징체계 문화의 틀을 변혁시켜 의식혁명(consciousness revolution)⁽²⁷⁾을 통한 인간해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제조류가 커다랗게 표면에 부각된 것은 소위 스탈린(Stalin) 비판 이후이다. 레닌사후 스탈린형의 마르크스주의가 이론적인 면에서 유물 사관의 객관주의적 결정론주의 해석을 더욱 강화하고 또 한편 실천면에서도 권위주의적으로 치우쳐⁽²⁸⁾ 대중의식의 발전을 억압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일부는 이러한 점에 연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의식적인 주체가 담당하는 능동적인 역할의 이론적인 해명 그것을 통한 마르크스주의의 재건이라는 문제는 마르크스주의의 운명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면서도 아직 미해결의 사상적 과제로서 남겨져 있었다.

비판이론이 유물사관의 객관주의적 결정론적인 견해를 배척하면서 역사에서 의식적인 주체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함은 주관주의(主觀主義)특성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ism), 현상학(phenomenology), 실존주의(existentialism)의 사상과 밀접 연결됨을 뜻한다. 의식적 주체인 인간은 객관적인 역사속에서 움직이면서도 오히려 역사를 만들어 낸다. 사회적 사실이란 스스로 나타내지 못하고 사회구성원들의 만남속에서 간주관적으로(intersubjectively)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역사를 총체적 주체적으로 파악하여 사회적 현실, 사회적 질서란 부단히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생성되는 의미체계로서 보는 이 견해는 비판의 대상으로서 객관적 사회구조가 아닌 주관적 심리구조를 부각시킴을 뜻한다.⁽²⁹⁾ 그런데, 이 비판의 대상은 비단 자본주의 진영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서, Reich⁽³⁰⁾와 같은 학자는 공산주의란 기껏해야 자본의 더욱 집중화되고 생산성의 증가를 위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는 관료체제의 국가자본주의의 틀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한다. 프롬의 현대사회와 문화의 인간억압적 성격을 분석한 것이란가⁽³¹⁾ 마르쿠제 가 급진적으로 역압없는 문명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도는 자본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 모두를 그 비판의 대상으로 한다. 마르쿠제는 「소비에트·마르크스주의」(Soviet Marxism, 1958)와 「일차원적 인간」(One-dimensional man, 1964)에서 소련을 포함하는 현대 공업사회가 얼마나 일차원적 억압체제인가를 분석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소수자의 반항을 기폭제로 하는 독특한 혁명론을 전개했다.⁽³²⁾ 이 혁명론은 60년대 세계적인 스튜던트 파워(student power)의 사상적인 지주로 주목을 모았다. 평면적인 객관주의와 일원론적인 사고의 틀을 비판하면서 인간적인 차원으로서 이론적 시도를 한점에서 비판이론은 급진적 휴머니스트(radical humanist)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이론에 대하여 물론 재비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통 마르크스사상을 이어받고 스탈린 신봉자(Stalinist)라고 불리우는 Althusser⁽³³⁾와 같은 학자는 휴머니즘(humanism)은 이념(理念)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역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개개인은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의 대행자일 뿐 역사는 스스로가 안고 있는 모순에 의하여 변화 발전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Althusser의 사상은 비판이론과 대조적으로 급진적 구조주의(radical structuralist)라고 불리워진다.

비판이론은 구조기능주의나 해석학적 이론등의 보수주의적인 학파와는 구별되는 뚜렷한 인식론적 특징을 갖는다. 프랑크푸르트학파중 Habermas는 실증주의나 해석학주의의 접근방법은 매우 현실부합적(現實符的)인 인식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체제 유지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이며 결국 현존의 사회질서 지배체제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파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인식의 길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는 여기서 지나 여지껏 경험할 수 없었던 비경험적인 비존재적인 상상의 세계 가능성의 임의도 인식하여야 진리에 도달함이 가능하다고 보는 비판주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보수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가 만날 수 있는 자유로운 담론(discourse)의 중요성과 의사소류의 형식, 언어구조, 상징

(27) G. Burrell & G. Morgan, 앞책 p.292.

(28) R. Lowenthal, "Democratic Socialism as an International Forces," Social Research, vol.47, 1980, pp.65-66.

(29) G. Burrell & G. Morgan, 앞책, pp.227-255, pp.279-307.

(30) 오재철번(현상과인식, 13년 발호) pp.129-149가 이해에 더욱 도움을 준다.

(31) E. Fromm, Beyond the Chains of Illusion, Simon & Schuster, Inc., 1962, pp.86-134.

(32) 中村雄二郎, (역산서당 譯), 앞책, p.246.

(33) L. Althusser, Reading Capital, (London: New Left Books, 1970)

구조가 항상 비판적인 새로운 내용을 수용하는 길에 열려 있어야 할 것을 중시하였다. 특히 Adorno 같은 이는 극단적으로 현대의 문화의 의미구조를 벗어난 부정적(否定的)사고를 해야하며⁽³⁴⁾ 역사적으로 보건에 이러한 부정적 사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으로 재구성되는 힘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비판이론은 현실제재적인 순응을 탈피해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시각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공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인간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의 제반현상들을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단순히 현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많은 사회 현상과 생전에 대하여 병목적으로 학습하거나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든가 과연 그렇다는 식의 타성에 젖은 사고를 하지 말자는 가르침인 것이다.⁽³⁵⁾

비판이론은 해석학적 이론의 체계와 비교해 볼 때 비판적 인식이나 보수적 인식이나의 기준에서 서로 갈라지지만 그들의 이론적 가정이 주관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점과 사회적 현실이란 외부의 객관적 사실과는 별개로써 마음의 산물(products of mind)이며 해석의 과정이라고 본 점에서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란 복잡한 상호관계의 산물(products of interrelationships)이기 때문에 세상의 본질이란 스스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단히 상호교섭하는 가운데 확인되고 재창조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다.⁽³⁶⁾ 현상학적 운동(phenomenological movements)의 창시자요 능동적인 인물인 Edmund Husserl⁽³⁷⁾은 초월의식(transcendental consciousness)개념을 사용하면서 의도적 행위(intentional acts)를 중시하고, 세상이란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며, 주관은 모든 객관의 원천(the subjectives is the source of all objectives)이라고 보았다. 즉 사회현실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주관적으로(intersubjectively) 상호

공유(共有)하는 의미, 또는 틀거름(frame of reference)로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형태(form of life)로서 고고 있는 것이다. Husserl은 특히 초월의식을 강조하여 현존하는 의미구조의 틀을 회의(懷疑)하며, 급진적 개입주의의 사상과 연관이있다고 볼 수 있다.⁽³⁸⁾ 또한 Schutz는 유형화(typification)에 의한 이해의 틀, 즉 틀거름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세계(Lebenswelt)⁽³⁹⁾속에서의 의미구조의 이해와 사회행동의 주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강조하였다.

비판이론은 비록 이와같은 주관주의(主觀主義)의 가정(假定), 이론적인 반실증주의(anti-positivism), 질적방법(ideographic), 명목주의(nominalism), 자원주의(voluntarism)입장을 택한 것이지만 이러한 해석학적 이론의 보수주의적 현상유지적 존재 이상(以上)을 보지 못하는 안목에 대해서는 결해를 달린다고 하겠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양자의 결해의 차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적 과정에 위치한 이론으로서 Garfinkel의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과 Goffman의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또한 Mead의 자아이론(self theory)을 들이 볼 수 있다. 민속방법이론⁽⁴¹⁾은 사회구성원의 상황과 생활양식을 결정짓는 당연한 가정(taken for granted assumption)을 확인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 민속방법론은 신보수주의(new conservative)라고도 불리우지는데, 현존의 사회의 의미구조가 사실은 단순히 타성에 의한 허구의 의미체제 일 수도 있다면서 사회질서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본 것이다. 이 이론의 경우는 어떤 계기를 만났을 때 사회의 의식구조와 질서들이 일시 크게 붕괴되어 버리고 재형성되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Goffman의 인상관리에서도 잘 설명된다.⁽⁴²⁾ 사람들은 자기자신의 진실한 측면과는 상관없이 상호작용 할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기준에 의하여 자신의 언행은 결정하므로 허위적 측면에 상호 입자한 사회의

(34) 申一澈(현), 앞책, pp.165-182.

(35) J. E. Baldridge, 앞책, pp.61-88.

(36) C. Burrell & G. Morgan, pp.227-255.

(37) 이영호(현상파인식, 79년, 겨울호) pp.69-86. 참조.

(38) G. Burrell & G. Morgan, 앞책, pp.240-243.

(39) 한상진(현상파 인식, 83년, 봄호) pp.108-128과 박순영(같은호) pp.8-35참조.

(40) G. Burrell & G. Morgan, 앞책, pp.282-288.

(41) 조경중, 앞책, pp.105-106.

(42) M. Deutch & R.M. Krau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London; Basic Book Inc., 1965, pp.203-211.

또한 A. Giddens의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1981, MacMillan Press. LTD) p.41.에서 인용된 내용 참조.

의미 구조물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의미구조 또는 문화가 각 사람의 진심을 대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대표성(非代表性)의 속성을 간파한 것이며⁽⁴³⁾, Mead가 인간의 자아(自我)란 I와 Me의 비동질적(非同質的)인 이중구조(二重構造)⁽⁴⁴⁾로 되어 있다는 해명으로 그 실명이 더욱 명백해진다. 여기에서 의면적 사회적 구조와 실속한 곳의 실리적 구조와의 괴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사회적 구조가 파악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곧 근원적인 심리적 구조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석학적 이론이 비판주의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발견된다고 하겠다.⁽⁴⁵⁾

사회로부터 규정되는 허위의식속에 사는 것을 거부하고 주의식 세계속에 깊숙히 자리잡은 진실한 자아를 찾아 도피하는 정신질환의 문제를 비판하는 만정진 의학의 제동이든지⁽⁴⁶⁾ 실존주의 사상은 비록 비사회적(非社會的)인 인면이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인간의 측면을 잘 본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것이다.

비판이론은 구조기능주의에서 언급하는 사회화(socializ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의 문제에⁽⁴⁷⁾ 대하여도 다른 견해를 갖는데 이것도 같은 이치라고 볼 것이다. 비판이론은 문화나 사회의 의미 구조를 반드시 사회구성원의 진실한 욕구를 대면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다만 합의(合意)로 가장(假裝)되어 있거나 또는 허위의식(虛偽意識)으로 파악되어 이것이 내면화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일정 영역의 한계를 갖는 것이다. 즉 의식화되는 부분이 의식의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다.⁽⁴⁸⁾ 이에 반하여 구조기능주의에서는 비사회화(非社會化), 비내면화(非內面化)되어 남아 있는 인성(人性)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전혀 가정하지 않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구조기능주의는 사회구성원의 내면을 깊숙히 동화(同化)시킴으로써 사회구조가 바로 사회적 사실이며 사회적 실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사회구조를 접근하는

실증주의 인식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비판주의가 개혁의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반하여 구조기능주의는 보수주의 이외의 논의가 불가능하게 되는 입장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렇듯 비판주의는 구조기능주의와 어느 차원에서든지 양립할 수 없는 가장 반대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것이다. 구조기능주의를 포함한 균형이론은 사회나 조직을 유기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부분의 변화는 서로 조정되거나 흡수되고 통합되어 결국 균형이나 안정으로 지향한다는 낙관적인 관점을 지니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균형론의 보수주의 입장을 비판이론의 개혁주의 입장과는 상반(相反)되는 것으로서, 비판이론은 균형론의 발상 자체가 문화를 사회구성원의 최대공약수(最大公約數)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조직과 역할 구조가 결정되는 위계적(位階的) 합리주의 도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실지배세력에 도움을 주는 이론의 전개라고 보는 것이다.⁽⁵⁰⁾

사회의 이념은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조직의 목표를 사전적 개념(事前的概念), 긍정적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후적 개념(事後的概念), 결과적 개념, 즉 사회내의 세세력간의 헤게모니(hegemony) 경쟁뒤에 나타나는 특징지배 세력에 의하여 선포되고 유도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이념은 사회구성원의 진심을 대표하는 일반의지(一般意志)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⁵¹⁾

이러한 비판이론의 사회이념이나 목표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Marx나 Darendorf⁽⁵²⁾로 대표되는 갈등이론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균형론에서 강조하는 균형, 조정, 안정, 질서, 점진적 사회변화 등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함께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비판주의 인식은 실존주의나 해석학주의가 현실과 인식을 부합시키려는 인식을 거부하고 현실의 사회가 최선의 형태라는

(43)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개념과 동일하다.

(44) M. Deutsch & R. M. Krauss, 앞책, pp.183~190.

(45) Vico의 인지구조 발달과정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46) 오세철, 「조직행동」(서문: 박영사, 1982), pp.77-84.

(47) D. Light & J. S. Keller, Sociology, Alfred A. Knopf, Inc., 1975, pp.108-140.

(48) 인간의 의식은 인간성이 없는 내용이 병존하여도 부조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견해.

(49) T. Parsons, Societies, Prentice-Hall, Inc., 1966, pp.1-98.

(50) 金澤均外(譯), 「社會學理論의 構造」(J. H. Turner 著,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한길사, 1983), pp.37-148.

(51) S. Clegg & D. Dunkerley, 앞책, pp.298-333.

(52) R. Da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California, 1959.

Hegel 우파적인 사고⁽⁵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비판이론의 학자중에 Habermas는 사회의 상징구조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언어의 역할을 중시하며 언어는 준거불 형성의 매개자(mediator)로 보며 이해(understanding) 과정의 중심으로 보았다. 혁신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의 의사 교류 체계를 원활히 하는 담론(談論) 및 정보의 흐름이 인간해방 및 창조적 문화사회를 이루는 척도(尺度)가 될 수 있음을 설교하였고 언어구조(language structure) 속에 사회적 존재와 인간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고 보았다.⁽⁵⁴⁾ 비판이론은 오늘날 이러한 구조화된 언어구조개념을 사용하면서 Giddens나 Clegg와 같은 학자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 되었는데, Giddens⁽⁵⁵⁾는 거시적인 역사상의 맥락에서 상징체계의 구조성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합의된 상징체계를 역시 결과적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액면 내용(face-value)보다 좀더 근원적인 조정자(behind real controller)에 더 관심이 있었고 사회생활(social life)의 생산 재생산의 문제를 언급하였다.⁽⁵⁶⁾ 또한, Clegg는 좀더 복합구조(complex-structure)로서 자원주의(voluntarism)성격을 더욱 배제시킴과 동시에 무엇이 자기론 지배하든지 선택할 수 없으며, 무엇이 누구를 지배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불특정지배의 사회억압 및 권력의 속성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주체로부터 구조를 더욱 분리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세계시스템(world system)과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에 의한 거시적인 체계적 구조속에서 부분조직을 인식⁽⁵⁷⁾한 새턴턴 비판이론의 현대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인간해방과 조직개발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는 운동 실천의 면에서 그

리고 사상이론의 면에서 점점 더 다양화 하는 경향을 보이며 분열과 대립의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레닌·스탈린형⁽⁵⁸⁾의 마르크스주의의 운동과 실천의 전제가 가져온 결과와 또 한편으로는 최근의 과학과 산업의 새로운 발전에 의해 생겨난 성과가 이 사상과 이론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거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어느것도 본래의 마르크스 사상과 이론에 근본적으로 관계되고 있는 문제로 그 해답을 둘러싼 분열과 대립은 이러한 점에 대한 원리(原理)적 반성과 그것을 통한 제정의 노력이 없이는 쉽게 극복되지 어려운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집중, 국가 권력의 중압(重壓)에 대한 자유와 인간해방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다.⁽⁵⁹⁾

Marx는 인간위에 절대적(絶對的)인 것은 없다고 보았고 사회의 최고 이념인 국가나 종교는 절대정신의 반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Hegel 우파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으며, 따라서 재창조 및 변화화를 위한 해방철학⁽⁶⁰⁾을 중시하였는데 해방의 문제에 관하여 Marx는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이 인간의 억압과 소외의 원인이 된을 보고 인간이 자발적 자기 성취를 하기 위하여는 생산력의 주체인 노동자의 해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⁶¹⁾ 그러나 이는 자인과 인간관계의 고등으로 배개된 한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적인 해방이며 그 결과는 기능주의적(機能主義的) 재편성(再編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상징구조로 맺어있는 인간사이의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서 문화의 억압구조로부터 보다 근원적인 인간해방을 추구하지 못한 것이다.

비판이론가인 Habermas⁽⁶²⁾는 노동(work)과 상호작용(interaction) 두개면 사이의 차이불 제시하였다. 노동은 산업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행위의 형태이며 합목적적 합리주의(purposive ration-

(53) 李相燾, 「共産主義批判」(서울: 大旺社, 1982) pp.22-35.

(54) R.L. Daft, "The Evolution of Organization Analysis in ASQ 1959-1979,"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80, 25, pp.623-636. (조직현상에 대한 선증서 자료).

(55) 史丹麟, 한상진(옮김), 「비판사회학」(A. Giddens 著, Sociology), (현상과 인식, 1982)

(56) J.H. Christenson & C.E. Sachs, "The Impact of Governments Size and Number of Administrative Units on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ASQ, 1980, 30, vol.25, pp.77-78.

(57) S. Clegg & D. Dunkerley, 앞책, pp.483-550.

(58) 申相燾, 「레닌과 러시아 혁명」(서울: 太陽文化社, 1977)

(59) 申相燾 二郎外, 앞책, pp.239-249.

(60) 白承均, 앞책, pp.41-78.

(61) R. J. Antonio, "Immanent Critique as the Core of Critical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32, 1981, 10, pp.333-334.

(62) G. Burrell & G. Morgan, 앞책, pp.295-296.

ality), 목적수단관계의 목표달성, 기술의 법칙(technical rules), 권력의 기술적 통제, 생산력 증진(growth of production forces), 의사소통의 왜곡의 목적을 갖는다고 하였다. 반면에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의 행위로서 전문화 극복, 사회생활의 응집성향상, 담론(discourse)의 기회균등으로 자아성찰적 언어의 해방적 능력에 관심을 가졌으며 후기 산업사회의 이상(vision)을 실현하는 관건(關鍵)임을 인식하려고 하였다.

진보된 산업주의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economic crisis)라기 보다는 정당성 위기(legitimacy crisis)라고 보았으며, 상부구조(superstructure)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계급혁명보다는 문화비판(文化批判)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⁶³⁾

Habermas는 인간의 삶태는 물적(物的)인 경제적인 억압구조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적(心的)인 억압구조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보았고, 존재와 경험을 초월한 가능성의 세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思考)와 부정(否定的)사고를 함으로써 인간해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좀 더 개념적인 틀로서 의식구조 분석을 언어구조(language structure)로 대체하였으며, 일상(日常)의 대화속의 언어구조의 성격은 간파하였다. 그의 의사소통의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s)의 개념은 상징적 상호작용의 맥락속에 정치적 거시구조와 언어 행위(speech acts)와의 연결(link)을 폐하였다. 이상적인 언론풍상(ideal speech situation)을 순수한 합의(genuine consensus)에 도달하게 되며 소외(64)를 유발하는 왜곡된 의사교류(communicative distortion)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보수주의 틀을 깨고 의미규정의 틀, 문화구조의 틀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고를 할 것, 또한 자유토론을 중시하여 의사교류의 체계나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경색이나 애로가 없도록 하며, 질반적인 참여로서 이상 사회를 실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피억압계급의 논리인 비판이론은 주관주의를 강조하면서 급진적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재구성해 보려는 반문화적(反文化的)인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입각하고 있는 방법론적 인식에서 볼때 과거나 현재의 사회를 근거로 한 인과법칙적(因果法則的)에측이 아니라 불연속(discontinuity)적인 미래사회의 창조라고 볼 수 있다.⁽⁶⁵⁾ 이러한 문화의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합리성(rationality)의 미명하(美名下)의 거짓된 질서, 신비를 벗겨줄 수 있는 진실한 이상주의 전통(true idealist tradition)에 입각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는 것이다.⁽⁶⁶⁾

인간이 문화속에 갇혀 있을 때는 문화밖의 세계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문화속의 인간은 그 문화가 보여주는대로 인지(認知)하고 그것이 제공해주는 표준에 따라 정서적인 표출을 하고 그것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에 의해 행동의 규율과 처방을 갖는다는 뜻에서 인간은 다시 문화의 꼭두각사가 되는 느낌을 감할수 없다. 사람이 만든 문화는 곧 사람을 부리는 주인이 되고 인간성이 상실되지만 앎을 가 하는 것이다. 이 상징체제인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심적인 억압을 주게 되는 것이며, 각 사람의 사고와 행위에 거의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⁶⁷⁾

이러한 문화의 심대한 영향력은 사람들의 인식의 세계와 학문의 세계를 단연히 여기는 가정, 신념, 전통속에 기존의 관념을 없애어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 구성원 거의 전부가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어느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대한 독자적인 힘을 과약한 것이다. 문화가 관용성을 잃고 쇼비니즘(chauvinism)⁽⁶⁸⁾과 같은 것으로 발전하면 더욱 그 해악이 크고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은 어지없이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 비판이론의 문화적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위한 사고가 중요시된다. 정상과학(正常科學)과 과학혁명(科學革命)에서 고원되는 패러다임(paradigm) 개념⁽⁶⁹⁾도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 사회적 맥락의 구속과 여기서 부터 벗어나 불연속적으로 새로이 구성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지니는 혁명적 인식의 변화를 통한 관

(63) 앞책, p.296.

(64) 소외의 원인이 Marxism과 다르다. Marx는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나 여기서는 communication system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65) 비판이론의 인식론적 특징이다.

(66) R. J. Antonio, 앞책 pp.335-338.

(67) J. B. Baldrige, 앞책, pp.61-111.

(68) 金瓊東, 앞책, p.213.

(69) 金永植의 논문 '토마스쿤의 科學觀'(현상파인식, 80년 봄호) pp.133-155.

백락에서 언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Marx나 Darendorf 등 갈등이론자⁽⁷⁰⁾ 들은 문화의 허구성에 대하여 심각히 논하면서 문화는 단순히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반영하며 지배계층에 유리하게 선포되고 전제되는 착취구조로서 지배 수단의 성격을 논란바 있다. 갈등론자들은 사회구조를 구태어 이분(二分)하여 양계급(兩階級)이 서로 경쟁투쟁하는 양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문화의 질서는 강한 계급이 약한 계급을 억압하는 강제력(coercion)에 성립한다고 보았다.⁽⁷¹⁾ 사회의 문화가치 이념은 합의(consensus)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며 권위(authority)와 경제적 부(富)가 항상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에는 불안과 갈등적 요소가 항상 내재(內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의 변동 측면을 잘 설명하는 갈등론자는 욕구와 욕구충족(need-satisfaction)의 결핍도식⁽⁷²⁾으로 혁명 또는 제반 사회변동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의 사고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누구때문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계급을 잘 지적하는 경향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불평구조에 대한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고의 틀이나 처방은 당초의 모순으로 되풀이되는 일차원적인 사고의 범주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비판의식이 성숙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는 안목이나 해방이 없는 단순한 욕구 결핍에 의한 기능적(機能的)인 재편(再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Clegg와 같은 학자의 말을 빌린, 사회적 불평등, 지배구조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인 법칙성을 지니고 있는 거대한 문화구조의 틀에 의하기 때문에 누구나 누구를 지배하는지 사실상 밝히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의 다원적 산업주의(pluralistic industrialism)⁽⁷³⁾도 이런 사상 체제와 연유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문화의 비대표적(非代表的) 성격, 즉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원하지 않는 내용일지라도 상징체계는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假裝)되어 독자적으로 엄연히 존재하

면서 각 사람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의식화 시키고 규정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권력의 본체를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상징구조가 특정인(特定人)에 의하여 자유로이 조정되는 것이 아닌, 정보의 흐름에 의하여 구조화되고 재생산되어가는 추상적인 언어구조(language structure)로 보며, 그러한 구조의 부분규칙(partial rules)⁽⁷⁴⁾로서 권력의 필계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그의 견해로 알 때 특정인 특정계급을 타도한다고 하여 평등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단견(短見)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기대한 시스템속에서 생산 재생산 되고 있는 거시적인 상징체계, 의미체계를 이해할 수 없어도 또한 이것으로 부터 이탈(離脫)하거나 이를 개혁(改革)함이 없이, 단순히 특정 지배계급을 전복(顛覆)하였다고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역시 안일한 생각이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발생학적(embryological) 사회조직의 이론⁽⁷⁵⁾의 생각을 여기에 원용하여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사회나 조직을 들여다 볼 때 좀 더 근원적인 거시적인 전체사회의 맥락, 세계사적인 흐름의 맥락을 간파(看過)하고는 막상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회의 본질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어느 한 사회의 속성과 또한 그 부분 사회가 미래에 진행될 방향은 그 사회가 근원을 두고 있는 전체사회의 조직으로부터 마치 유기체의 씨앗과 같이 그 특성을 배태(胚胎)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사회가 모델로 하고 있는 거시적인 틀을 살펴봄이 중요한데, 오늘날 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의 모델, 저항하고 있는 속성은 서구 모델이라고 할 것이며 많은 국가들은 전율을 버리고 이러한 서구 모델의 씨를 받아 자라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거시적인 전체세계사적인 거대한 흐름, 아무도 거역하기 어려운 이 현대사회의 서구 모델의 저항성은 서문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불행을 가져다 주는(비록, 일시적 그리고 특정지배계층에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도)

(70) 박영신편저, 「갈등의 사회학」(서울, 까치, 1980)

(71) J.H. Turner, 앞책 pp.153-191.

(72) 장일준 논문 '한국에 있어서 이태운보기 비판의 방향' (현상파인식, 83년봄호) pp.35-65 그리고 그의 저서 「유당과 유당충족의 변동체계」 참조.

(73) W. Korpi & M. Shaley, "Strikes, Industrial Relations and Class Conflict in Capitalist Societi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30, No.2, 1979, 6, pp.164-166.

(74) S. Clegg, The Theory of Power and Organization, London; Routledge & K. Paul, 1979.

(75) G.C. Cafferata, "The Building of Democratic Organization; Embryological Metaphor," ASQ, 1982, 6, pp.280-299.

파행(敗行)을 걷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일부의 선진국가들을 제외하고 많은 국가들은 불평등 구조로 경제적 경제적 피식민(被植民) 착취상태(搾取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종속이론(從屬理論)으로 잘 설명되고 있다. 또한 대체로 오늘날 후진국 개발도상국들 중 이러한 지구모델에 밀착하던 한수족 이들의 나라는 현대문화의 병폐가 심화되고 외채(外債)의 부담(負擔)이 심해지며, 국내적으로 불평등 구조가 더욱 경직화 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이나 변동은 더욱 빈번하게 경험하게 된다.

새로이 근대화 산업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극심한 사회적 불안과 변동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인간해방의 문제에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과연 사회적 비판의식이 향상되어 나타나는 사회의 재창조적인 조직운동인가?

이들의 국가가 지구모델, 현대사회의 문화 체계에 충실하고 잘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반사회운동은 결코 비판의식의 향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단순히 하부계층의 생래적(生來的)인 고통 때문에 나타난 폭발적인 현상이지 이들 사회의 지배계층이든, 피지배계층이든 의식구조의 변화가 와서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양상은 아닌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지배계층에 의한 지배계층의 타도 천복에 의해서도 분명 새로운 평등의 사회, 유포피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생각해 보건데 비판이론과 그 비판이론의 형성에 있어서의 아이러니칼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략적인 생활조건이 악화되던 필수족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더욱 비판적이 될 것인가 더욱 기능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환원하던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때 사회의 구성원이나 그들의 입장이 더욱 기능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비판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형편이 전락하여 하부계층의 사람들이 이러한 처지에 이르던 일견 더욱 비판적이 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으나 불질적 경제적 해방이 없이는

비판주의 이론을 수용할 비판의식이 생겨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로운 사고나 비판적인 창의력은 어떤 사회나 조직 내에서든 대체로 동기를 성취한 사람들, 이른바 신분 높은 사람들이나 부유한 여유가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능했던 것 같다.⁽⁷⁷⁾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유로운 사고나 창의성을 갖게 될 여유가 없고 각박한 현실속에서 잘 적응하고 경쟁하기 위하여 보다 더 기능주의적(機能主義的)인 경향에 빠지게 된다. 비판이론이 갖는 아이러니는 그 출발이 피억압계층의 입장에서 출발하여야 하지만 한 사회의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 자율적인 사고는 현실적으로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해방이 되어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혁명은 포함한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의 사회운동은 여기서 의미하는 비판주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욕구와 보상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갈등해 소의 수단으로서 기능주의적 태도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아무리 빈번히 진행되더라도 문화구조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새로운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이 든에 대하여 한(恨)은 품으면서도 동시에 선망(羨望)을 하고 있으며, 권위(權威)에 대하여 원망(怨望)하면서도 또한 그것에 대하여 동경(憧憬)을 하는 사람들⁽⁷⁸⁾에 의한 사회운동인 것이다. 어떤 세력의 계층이 부상하면 이들에게 흡수되거나 크나풀이 되어 물러다니는 황견(yellow dog)같은 무리나⁽⁷⁹⁾ 아니면 소외되고 설움을 잃어 상대(相對)의 이권(利權)을 재탈취(再奪取)하려는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어느 쪽도 필요한 만큼 추구하거나 인하고 여유를 갖는 자유인, 권력으로 부터 해방되는 자유인론이 되지 못한다. 상품화 과정, 권력화 과정은 추방시키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설 땅을 찾은 사람과 설 땅을 잃은 사람들의 구분 그 이상의 것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들 양자사이든 부정될 뿐인 것이다.

Marx를 포함한 관동이론가들이 말하는 사회운동이란 욕구와 보상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일차원적(一次元的)인 사고이며 비록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76) 新東旭, 83년 8월호 pp. 256-279(金森均의 글)에서 現行 外債의 狀況을 잘 설명하고 있다.

(77) 그리이스 로마시대의 학문의 발전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귀족층에 의해 가능했다. 노예는 이들의 뒷받침을 한 도구적 존재였으며 자의식발달이 거의 없었다고 볼 것이다.

(78) 율홍길의 「와장」이라는 소설, 필자는 매우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79) 원래는 노사관계에서 스트라이크 행동을 매번하는 노동자를 일컫는 말이다. 오늘날 파업충성하는 중간관리자도 이런 의미에서 좋은 본보기로 포함될 것이다.

중 사이에 순환적인 도치현상(倒置現象)을 나타내게 되나 그 사회는 여전히 산업주의 경쟁주의의 같은 맥락에 머물러 있는 차원의 사회변동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反)하여 비판이론은 동일한 차원에서의 계급변동이 아니라 사회변동의 차원을 넘리하는 것이다. Habermas의 말을 빌리면 사회구성원이 상호작용함으로 형성시키는 객관화된 중간대체의 구조물인 상징체계, 언어체제를 개혁(改革)시키며, 또한 정보의 흐름과 배분, 의사소통, 담론의 과정을 증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왜곡을 바로 잡고 의식혁명(consciousness revolution)을 꾀하기 위한 전략(戰略)으로서 전인격적(全人格的)인 교육(教育)⁽⁸⁰⁾에 큰 기대를 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새로운 창출과 흐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사회계층으로서의 교수, 대학생들, 정신적 기술자들의 부상, 이물태던 새계급(New-Class)⁽⁸¹⁾이라고 불려지는 지식계급의 역할이 주목된다.

오늘날 교육체제를 비판하여 볼 때 오늘날의 교육현장이 산업주의의 예속물이 되어 이 사회의 문화구조 가치체계에 기여하는 체제유지적인 도구적 기능적인 속성을 지니며 점차 전문화 분업화로 치닫고 있다. 기회주의적(機會主義的) 편의성(便宜性)에 좌우되며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자의식(自意識), 자아형성(自我形成)의 문제가 소홀히 취급된 점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다듬어질 부족쯤처럼 비인격적 교육이 이루고 있는 실정을 탈피하여 인간성 회복, 총체적(總體的)이고 종합적인 전인교육으로서 위치를 확보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편협(偏狹)된 관점(觀點)은 해방시켜 준더 자유롭고 넓은 사고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창의성, 자율성 보장과 자유로운 표현, 자아 완성, 자기실재력의 실현능이 가능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⁸²⁾ 이를 위한 교육방안으로서 좀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교양교육(教養教育)의 강조와 학문지식의 흐름을 증요시하며 각 분과학문의 종합을 꾀하는 연계학문적(interdisciplinary) 경향을 볼 수 있다.⁽⁸³⁾

특히 Adorno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

장 활발히 전개하여 기존문화의 틀에서 벗어난 자의식의 발달, 비판의식, 계몽의식의 향상에 가장 가능한 영역으로서 철학, 예술, 문학등의 형이상학적 분야를 들고 있으며,⁽⁸⁴⁾ 이들의 분야가 인류의 정신적 해방에 기여하는 몫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 분야의 가치는 오늘날의 문화와 가치관의 모순을 파헤치고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문화의 실체자로 얼마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의 수준을 지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실존주의의 Sartre의 생각과 이어지는데, Sartre는 현실제약을 넘어선 사고는 인간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며 현실(現實)과 의식(意識)의 간격(gap)이 줄어들 자유와 인간성(humanity)이 고양(高揚)된다고 보았다. 현실속에 집착 몰입하던 그만큼 잘못된 충성이 나타나고 자유와 인간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Adorno는 그의 논문의 형식에 대한 비판에서도 그의 방법론적 성격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논문의 용어(用語)들이 반드시 기존의 사회에서 합의되고 인정된 것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객관적인 표현을 해야 하며 또한 그 논리의 과정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引用)하는데 급급한 것을 비판하여 학술논문조차도 참으로 기존의 보수적인 체제가 스며드는 논문의 형식을 문제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학문의 세계가 자유롭고 길들여지지 않은 사상을 정제하고 방법론적으로 이미 인정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만 승인하는 감옥기관으로 변모한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학문의 내용은 방법론이든 형식이든 다성(惛性)을 벗어나야 하며 사고습성(思考習性)이 분명 고착적(固着的)인 것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할 뿐인 것이다. 학문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때문에 이미 합의되고 일상화된 그러한 해석의 보수적 체제와 기준으로 새로운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게 보는 것이다.

새로운 비판적인 사상과 정보가 창출되며 정보의 흐름이 가장 빈번하게 교차(交叉)되는 곳에 새로운 권위가 형성된으로서 의사소통의 예목과 검색이 탈피되고 의식혁명의 길은 열리게 되며, 또한 급변하는

(80) 교육의 혁명을 통한 문화혁명, 문화혁명을 통한 사회혁명의 공식으로 이해하여도 부리가 없을 것이다.

(81) 박영진논문, '사회운동과 새계급'(현상과 인식, 83년 봄호) pp.85-107.

(82) 장상호(울진), 「인간주의 교육」(C.M. Patterson 著, Humanistic Education) (博英社, 1981), pp.118-113, pp.148-169.

(83) 오세철, 앞책, pp.241-245.

(84) 白承均, 앞책, pp.179-252.

상황⁽⁸⁵⁾ 속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조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변동이 인간의 생애적인 어려운 조건, 신체적 물질적 고통이 있을 때 일어날 것으로 보는 마르크스의 견해와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 사회의 변동과 개혁은 그 사회구성원의 비판의식, 계몽의식 수준이 더 대체로 그 사회의 지식인 대학원 등 엘리트들이 주동이 되어서 사회운동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소이(所以)가 기기에 있다고 하겠다.⁽⁸⁶⁾

비판이론은 현대의 문화사조를 그대로 둔 채 욕구충족경향으로 일어나는 결국 보수주의 색채로 퇴귀(回歸)한다고 보았다. 여기에 같은 파라다임에 속하나 비판이론보다 더욱 회의적이고 급진적인 사상으로서 일체의 조직적 이기적 행위에 반항(rebellion)하는 Max Stirner의 무정부적 개인주의(Anarchistic Individualism)가 있다.⁽⁸⁷⁾ 비판이론은 어떤 뚜렷한 사회목표와 조직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목표의 자유로운 추구, 과정적(過程的) 개념으로서 무한한 기존목표를 비판하는 자체가 비판이론의 생명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모순으로 무한한 비판적 안목이 요구되는 현대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는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⁸⁸⁾ 미래사회가 분화실성의 사회로 도래된다는 것과 비판이론의 무한한 대안(alternatives)을 제시할 수 있는 진축성(flexibility) 부여의 관계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인간해방을 위한 조직이론은 이러한 분화실성의 시대, 급변하는 환경속에 조직을 확실한 형태로 묶어둘려는 어떠한 기능적(機能的) 시도도 반대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급변하는 상황자체를 인정하면서 조직 개발을 시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해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조직개발은 관료제(Bureaucracy)를 탈피할 것이 요구되며, 비판이론에 인용된 조직개발이론은 반조직론(Anti-organization)⁽⁸⁹⁾이라고 불려질진다. 반조직이론은 '조직'이라는 명칭이 붙은 객관화된 정신의 산물, 즉 구체

화된 사회적 구성물이 전체성(totality)이해와 인간성(humanity)의식을 방해하고 소외시키는 대개들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 조직 이론은 구조 기능주의 입장 관료제와 모든 면에서 상반(相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관료제는 구조기능주의적인 관점, 도구적 발상에서 비롯된 조직이론이다. 관료제는 가장 완벽한 정보와 계획에 의존하여 합리적으로 조직되며는 조직원리를 갖으며, 가장 완벽한 관료제는 가장 합리적 결정론적이 되어 신축성은 완전히 상실된다.⁽⁹⁰⁾ 관료제를 탈피하면 조직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수주의적인 사고이며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현실적응적인 사고로서만 유효할 뿐이다.

반조직이론(Anti-organization)은 아직 자주 동용되는 용어(用語)는 아니나 관료조직이론(Bureaucracy)과 대립되는 용어로서 설정하여 비판이론에 엄격한 조직개발의 아이디어들을 집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비판이론이 관점에는 강하나 관료제를 대신할만한 치방이 없는듯이 생각되는 것은 그만큼 뚜렷한 용어 부재(不在)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반조직이론(反組織理論)에서는 따뜻하고 인격적인 집합주의 공동생활과⁽⁹¹⁾ 자원조직(voluntary association)의 속성을 갖는 비억압적 비조직적인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 Reich, Roszak, Castaneda, Gouldner, Baynon, Clegg, Silverman, 등의 견해를 유의해 볼만 하다.⁽⁹²⁾ Reich는 반문화운동과 이에 기반을 둔 의식혁명, Roszak은 명예와 즐거움으로 노동하는 사람의 공동사회, Castaneda는 낭만주의(romanticism)을 강조하였으며, Baynon은 노동자의 계급의식, 착취의식, 인식에 초점을 두었고, Clegg는 Habermas의 언어역할분석을 원용하여 권력을 부분규칙(part of rules)의 속성으로 파악하였으며, Silverman은 조직생활의 언어적 위계적 성격과 의사소통의 왜곡분세에 관심을 가졌다.

(85) 오세철, 앞책, pp.177-195.

(86) 박영진, 앞책.

(87) M. Stirner, *The Ego and His Own* (New York: Libertarian Book Club, 1907), p.167.

(88) 아무리 좋은 비용의 사회 목표라도 고착되면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목표에 대하여 비판이론은: 목표의 내용보다 과정을 우선하는 논점을 받는다.

(89) G. Burrell & G. Morgan, 앞책, pp.310-323.

(90) J. D. Thompson, 'Organization in Action' in Schafritz & Whitebeck(eds), 앞책.

(91) J. Rotnschild-Whitt, "The Collectivist Organization: an Alternative to Rational Bureaucratic Mode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9, vol.44, p.525.

(92) G. Burrell & G. Morgan, pp.310-324.

구체적인 현실속에서는 예를들어, 독일의 녹색당⁽⁹³⁾의 등장, 반문화적 코문형식의 소단위 조직, 이스라엘의 기부조직, 미국 시구 유럽의 반문화 운동 및 학생운동, 한국의 경우는 풀무원운동⁽⁹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조직내의 다원적이념 반문화화 사회심리구조의 변화, 원활한 정보흐름의 기술체제와 연계학문, 교양교육의 강조로서 기술적 대안, 정치적 대안, 문화적 대안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⁹⁵⁾

우리나라의 입장을 서술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시구의 영향을 받은 사회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본디 우리가 지닌 옛날의 전통적 문화와 심리구조를 되찾아 되살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겠다. 이 전통을復古적(復古的)으로 되찾으려는 생각은 인간 해방을 위한 대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 당시의 심리구조가 사실상 그 당시의 억압적 사회구조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을 간과(看過)한 것이다. 옛날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유교봉건체제속에 문제가 있었다면 옛날의 문화와 심리구조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심리구조는 그것이 시구적이지도 않고, 낡은 과거의 인습이지도 않은 다른 차원의 대안으로서 의식혁명을 통한 재창조적인 새로운 틀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대안을 구한다고 하여 물론 과거에 살아왔던 업적들을 송두리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인식과 관점은 현실과 불연속적일지라도 그 해결수단은 현실에서 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반 여건을 활용하여서 재구성(再構成)하는 가운데 대안 추구의 가능성, 해방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⁹⁶⁾에서 다가올 미래사회를 정보시대로 규정하고 고도기술의 내용변화로서 전혀 새로운 기업조직과 새로운 생활의 질의 향상이 가능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형태의 변화는 과거의 자원을 정복하기 위한 기능적 기술이 희소성(scarcity)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나, 잉여(surplus)가 있는 시대, 즉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 들어와서는 유배함과 자유, 낭만, 창의성, 자아성취, 인간성존중이 보장되는 비

관료적인 조직과 권리기술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Marcuse⁽⁹⁷⁾의 말을 빌리면, 이제는 본능(instincts)을 억압시킬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으며 필요이상의 통제는 원 생산체제와 교환 질서를 지지하는 잉여불을 위한 통제(surplus repression)의 의미만을 갖는다고 한다. 기존의 사회, 조직의 목표자체가 옳은지의 여부를 사고하는 비판이론의 접근은 기능주의 접근과 다른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개인적 희생, 순교자적인 자기희생이 요구되는 발상인지도 모른다.

Ⅶ. 맺 음 말

현대문명의 체문제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조직을 꾀하는 매우 혁신적인 비판이론의 관점은 오늘날 그릇된 통념과 문화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허위외식(虛偽意識)을 파헤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의식혁명(意識革命)의 논리에까지 이른 것이다.

비판이론은 인간주의적(人間主義的) 마르르시즘에서 출발하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표적으로 이어져 발전해오며, 유물사관의 결정론적 객관주의적 사회구조의 인식을 배척하면서 인간의 의식적인 주체적 능력, 주관주의 심리구조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구조주의나 해석학적 이론들의 현실부합적인 보수주의 학파와는 구별되어 비경전, 비존재적인 상상(想像)의 세계, 가능성의 영역도 인식하여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이 이론은 매우 혁신적인 관점을 보인다. 비판 이론은 사회구성원들이 상호 교섭하는 가운데 간주관적으로(intersubjectively) 형성시킨 의미 구조가 각 사람의 진실한 욕구신려 구조를 반영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문화의 비대표적(非代表的) 속성을 간파한 전에서 해석학적 이론에 비판적 관점은 결부시켜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조기능주의와는 어느 차원에서든지 양립(兩立)할 수 없는 가장 반대적인 성격은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여러 대안의 추구는 자본주의의 진영, 사회주의의 진영 어디든지 동일하게 적용 된다고 할 것이다.

(93) 녹색당은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의 정당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 순수성이 어떻게 변질될지는 모른다.

(94) 중앙일보 83년 6,9일자 기사참조.

(95) 오세철, 앞책, pp.177-296.

(96) A. Toffler, The Third Wave, New York: W. Morrow and Company, Inc., 1980.

(97) G. Burrell & J. Morgan, 앞책 참조, pp.292-293

Marx는 인간의 해방의 문제에 관하여 인간이 자야 발전, 자기창조의 삶을 위해서는 생산력 주체인 노동의 해방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상징구조로 맺어 있고 인간사이의 관계를 소솔함으로써 문화의 억압구조로부터 보다 근원적인 해방을 추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비판이론가인 Habermas는 이러한 심저인 억압구조도 아울러 해방되어야 진정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미래사회의 불연속적(不連續的)인 창조라고 볼 수 있는 비판이론의 관점은 문화의 심대한 영향을 벗어나고 그 심비를 벗겨보는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비판이론의 해방의 관점은 구조적 변화시도, 욕구와 욕구충족의 결핍의 도식에 의한 제반 사회운동에 대하여 회의(懷疑)를 갖는 역사적 거시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볼 것이다. 오늘날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운동은 비판의식, 계몽의식이 향상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 불가피함도 언급하였다. 외식구조의 변화없이 사회운동이 아무리 빈번하여도 같은 모순이 되풀이하여 나타남으로서 근원적인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외식혁명을 통한 다른 차원의 방향이 요구되며, 원활한 의사소통의 흐름을 통하여 복제 계급의 타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근원적인 상징 구조의 변화란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조직개발 및 전략으로서 반조직이론(Anti-organization)의 발상이 주목된다. 미래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로 도래되는 것과 비판이론의 무한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신축성(flexibility)부여의 단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았다.

비판이론의 공과(功過)를 평가해보건데, 그들이 지니는 기존(既存)의 관점과 달래하는 독특한 인식의 관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업적(業績)을 지닌다고 할 것이며, 앞으로 만약 성공적인 반조직적 사회조직의 사례(事例)가 많이 나타나고, 또한 좋은 대안(代案)이 많이 개발하게 되면 판교제를 대체하고 현대경영의 병폐를 치유(治癒)하고 해방을 구현할 수 있는 인류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이론에 입각한 조직이론은 생존(生存)의 도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 보려는 것이다.

비판이론의 입장을 취하다보면 현실세계에 비적용자, 저항세력, 또는 일탈자(逸脫者)로 낙인(烙印)이 찍혀 체제속에서 개혁하려는 의지(意志)가 좌절(挫折)되며 때로는 막대한 개인적 손실(損失)을 감수해야 하는 수난(受難)을 겪을수도 있다. 이점에서 비판적 입장의 불리(不利)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때문에 비판이론의 방향이 비효율적(非効率的)이라고 단정(斷定)하는 것은 근본적 가정(假定)이 잘못된 것이다. 비판주의 입장을 취하는 조직이론가는 이 사회의 조직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순교자(殉教者)의 길을 걷기가 쉽사이다. 또한 그러한 입장의 집단이나 단체 또는 그러한 사회는 자신들의 협의 배양(培養)의 측면에서 일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다음에 온 세대를 위하여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의식혁명(意識革命)을 통하여 평정(平定)하고자 하는데에 이타주의(利他主義) 색채가 짙은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의 온곳에 이러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이타적인 사상(思想)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다면 자연 새로운 의식개혁(意識改革)의 운동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회는 지금의 사회문화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비판주의 조직이론은 현실적응적인 이기적 타산적인 조직이론이 아니라 자기희생적인, 도전적이며, 이타적인 조직이론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탕이 기존의 조직이론과 다른 것이다. 자신의 이익 생업(生業)을 열두에 두고서는 도저히 그 전개가 질때 불가능한 조직이론이라고 하겠다. 비판이론은 매우 급진적(急進的)인 현실개혁(現實改革的)인 입장을 취하지만 그 이론의 전략(戰略)이 자신을 위하여는 무방비(無防備)한 비폭력(非暴力), 비전투적(非戰鬥的)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아무나 전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 인격이 결부되어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며 후비니즘에 바탕을 둔 참다운 용기(勇氣)를 가진자만이 비판이론을 전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마치 예수가 칼을 들지 않았다고 하여 바리새보다도 더 나약한 개혁론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기주의 발달과 비판주의 조직이론은 양립(兩立)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白承均, 辨證法的 批判理論, 經文社, 서울(1983).
2. 中一澈(編輯), 프랑크푸르트學派, 청담, 서울 1981.
3. 박영진, 한상진역, 「미관사회학」, 현상과 인식, 서울, (1982)
4. Toffler, A., The Third Wave, W. Morrow and Company Inc., 1980.
5. Burrell, G. & Morgan, G.,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Heineman, (London; 1979)
6. Giddens, A.,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The MacMillan Press LTD., 1981.
7. Clegg, S. & Dunkeley, D., Organization, Class and Control, Routledge & Kegan Paul LTD., 1980.
8. Ferrarotti, An Alternative Sociology, John Wiley & Sons, Inc., 1979.
9. Conneton, P., Critical Sociology, Penquin book, 1976.
10. Freiberg, J. W., Critical Sociology (European Perspectives), John Wiley & Sons Inc., 1979.